민족문화연구 “한국 근대의 지식 문화 탐색과 한국학 영문 사전 편찬” 특집의 말

이번 특집은 “한국 근대의 지식 문화 탐색과 한국학 영문 사전 편찬”을 주제로 제33회 한국학 사전 및 공구서 모임에서 발표한 논문 4편을 수록하였다. 개화기부터 1945년에 발간된 간행물을 통해 당대의 지식문화의 단면을 살피고, 아울러 해당 시기 간행물에 대한 영문 사전 편찬 방법론도 함께 다루고 있다.

이러한 기획의 계기는 해외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부생, 대학원생, 그리고 연구자를 위한 한국 근대 간행물에 대한 해제 작업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을 위한 영문 사전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 근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신문, 잡지, 단행본의 거시 구조와 미시 기술에 천착하게 되었고, 당대 지식문화의 주동적 인물의 저술과 편집 활동, 학술 단체의 기관지에 나타난 연구 지향점과 방법론, 성과 등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한국학 영문 사전의 편찬 방법론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네 편의 논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류시현의 “1920년대 중후반 홍명희의 저술과 편찬 활동—『학창산화』와 『조선사연구초』를 중심으로”에서는 1920년대 홍명희 『학창산화』와 신채호의 『조선사연구초』의 편찬과 관련하여 신문에 연재된 글이 책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사상사, 사학사의 관점에서 주목할 점들을 포착하였다. 우선 홍명희가 1924~25년 동아일보사 「학예란」에 ‘학창산화’를 연재하면서 과학 관련 지식 및 ‘조선적인 것’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 보통학교를 졸업한 독자를 대상으로 ‘보통’ 지식을 전달하고자 했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도서 『학창산화』로 출판되는 과정에서 지식의 체계화가 이루어졌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홍명희가 당시 신문에 연재된 신채호의 한국 역사 관련 글을 모아 1929년에 『조선사연구초』로 출판하는 과정에 나타난 목차와 체계 및 표현의 변화를 통해 편집자 홍명희에게 ‘재량권’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최경봉은 “조선어학연구회 기관지 『정음』(1934-1941)을 통해 본 조선어 연구의 지형”을 통해 당시 조선어학계의 조선어 연구의 목표, 방법론,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실천적 언어 연구’에서 ‘과학적 언어 연구’로의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정음』의 논문 게재 경향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피고, 주류적 연구 경향이 역사비교 언어학으로 바뀌는 변화가 필진의 교체와 연동되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변화로 철자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보였던 『한글』과 『정음』간 진영 경계가 희미해졌음을 밝혔다. 또한 『정음』의 논문을 ‘철자법 관련 논의’, ‘언어 이론 관련 논의’, ‘언어정책 관련 논의’ 등으로 나누어 언어 연구의 관점과 지향을 설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정음』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역사적 접근을 통해 언어 문제 및 언어 현상을 해결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도원영은 “해외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지식 사전 편찬 방법론 연구 1—〈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거시 구조를 중심으로—”에서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성격과 편찬 목적, 그에 따른 표제어 구성의 원칙과 기준, 세부 방법론, 선정 목록의 평가 과정에 대해 살피고 있다. 기출간 사전과 해제집에 등재된 표제어 목록을 작성한 뒤 이를 정리하여 수록 종수, 논저의 연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점수화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평정을 통해 표제어 목록을 선정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또한 선정한 표제어 목록이 적절한지를 신문 표제어를 대상으로 교과서 편수자료, 한국언론사, 한국근현대사 등 주요 자료의 색인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신문 표제어의 86%가 색인에서 확인됨으로써 사전 표제어 선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적절성, 결과의 신뢰도를 증명하고 있다.

장경식의 “한국학 백과사전 기반 영문 사전 편찬을 위한 국문 원고 교열의 개념과 실제”에서는 한국학의 해외 소개라는 맥락에서,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이용자로 상정한 해외 한국학 전공자와 연구자의 배경지식을 살피고, ‘문화번역’이라는 담론 안에서 집필과 윤문, 번역과 교정 등 편찬의 모든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할 기준을 제안하였다. ‘미국에서 대학 학부에 재학 중이며, 한국학에 관심이 있고, 한국어의 해득은 초급 정도인

연구자’를 ‘표준독자’로 상정했으며, 국문 교열에 있어 저본에 바탕을 두되 이용자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국학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도록 창조적인 변용과 보강이 필요함을 사례를 들어서 제시하였다.

이상으로 특집에 수록된 네 편의 논문을 개괄하였다. 한국 근대 간행물에 나타난 지식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고, 한국학 영문 사전에 대한 사전학적 쟁점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특집 논문을 통해 한국학을 고민하는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의미 있는 읽을거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특히 전공을 넘어서는 인식과 시야를 갖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